

2020학년도 세종대학교 수시모집 논술고사 문제지(인문계열 A형)

(가) ‘진실’이란, 어떤 사건이나 문제에 대해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말한다. 그러나 있는 그대로란 무엇인가? 언론에 있어 ‘진실’이란, 사물을 부분만 보지 말고 전체를 보아야 한다는 것을 뜻한다. ‘진실’이 알려지는 것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신문이 사건이나 문제의 전모를 밝히는 것을 저지하기 위해 자기들에게 유리한 부분만을 과장하여 선전하기도 하고, 불리한 면은 은폐하여 알리지 않으려고 한다. (…)

사실을 정확하게 보도하려면 기사를 객관적으로 써야 한다는 말이 있다. 조금도 주관성을 섞지 않고 있는 그대로 기사를 써야만 정확한 보도가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객관적’이라는 표현은 주의해서 이해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정확하고 올바른 보도일수록 객관적이기보다 오히려 훌륭한 의미에서 주관적이기 때문이다. (…)

윤봉길 의사가 1932년, 중국 상하이(上海)에서 일본 시라카와 대장 등을 폭사(暴死)시킨 사건을 예로 들어 보자. 만약, 정확한 보도라는 것이 주관을 전혀 개입시키지 않고 거울처럼 보이는 그대로를 보도하는 것을 의미한다면, 윤 의사는 일본군의 엄숙한 의식을 피바다로 물들인 엄청난 사건의 ‘테러리스트’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 신문은 마땅히 윤 의사를 규탄하는 보도를 하지 않을 수 없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이런 보도가 사건을 정확히 알리는 보도가 될 수 없다는 것은 분명하다. 윤 의사의 장거(壯舉)는 우선 역사적으로 이해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일본이 한국을 식민지로 삼고 있으며, 식민지 제도라는 것이 인류 역사상 배경, 규탄돼야 할 역사적 유제(遺制)라는 판단이 앞서야 한다. 또, 윤 의사의 장거 당시 우리 삼천만 동포가 일제의 착취와 탄압 아래에서 얼마나 신음하고 있었느냐를 윤 의사의 행위와 관련시켜 보아야 한다. 사건을 전체적, 역사적 근거와 조건을 식별하는 입장에서 보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판단이 서야만 이 사건의 핵심이 어디에 있는가를 비로소 파악할 수 있다.

윤 의사의 폭탄 투척을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에 이 같은 수많은 사실이 횡적으로 종적으로 얽혀 있다는 점을 우선 알아야 한다. 한 사건을 정확히 보도하는 데 만약 이와 같은 풍부한 지식이 필요하다면, 어떤 의미에서는 주관적 보도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정확한 보도를 하기 위해서는 고도의 사회 과학적 소양과 문학적, 철학적 소양이 필요하다.

미국이 낳은 세계적인 기자 올솅 형제가 “훌륭하고 정확한 보도는 본래 가장 주관적인 것이다.”라고 한 것도 이런 점을 지적해 말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윤 의사의 의거와 같은 극단적인 예를 든 것이 적절치 못하다고 할는지 모르나, 정확한 보도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사실일수록, 오히려 고도의 주관적 보도를 통해 진실의 전달이 가능하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신문이 진실을 보도해야 한다는 것은 새삼스러운 설명이 필요 없는 당연한 이야기이다. 정확한 보도를 하기 위해서는 문제를 전체적으로 보아야 하고, 역사적으로 새로운 가치의 편에서 봐야 하며, 무엇이 근거이고, 무엇이 조건인가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했다.

(나) 펜타곤 페이퍼 작성에 참여하였던 군사 분석 전문가 대니얼 엘스버그는 1971년 베트남 전쟁을 촉발한 사건인 ‘통킹 만 사건’이 사실은 미군이 베트남전에 참전하기 위해

조작한 것이라는 내용이 담긴 펜타곤 페이퍼를 세상에 공개하였다.

당시 미국 측은 베트남 북부 해안에 위치한 통킹 만에서 베트남 어뢰정이 미군함을 두 번이나 선제공격했다고 폭로하여 전 국민의 분노를 일으키고 전쟁 참여 여론을 일깨웠다. 하지만 알고 보니 통킹 만에서는 아무 사건도 일어나지 않았다. 베트남은 공격을 한 적도 없고 미군은 공격을 받은 적도 없었던 것이다. 미군이 이 같은 사실을 조작한 이유는 베트남전 참전의 명분을 얻으려는 이유에서였다. 전쟁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경제적 이익 때문에 미군 고위층과 군수 업체가 합작하여 통킹 만 사건을 조작했던 것이다. 이 같은 내용은 펜타곤 페이퍼에 자세히 기록되었다.

엘스버그는 처음에는 미국의 인도차이나에서의 역할을 열렬히 지지하는 쪽이었다. 그러나 무고한 사람들이 희생당하는 참혹한 전쟁을 목격하고, 펜타곤 페이퍼 작성 팀의 일원으로서 비밀을 지킬 것인지, 아니면 한 사람의 시민으로서 통킹 만 사건의 진실을 알릴 것인지를 고민하였다. 결국 그는 펜타곤 페이퍼를 세상에 공개하기로 결정하였다. 엘스버그는 이 보고서를 뉴욕 타임스지에 보냈고, 뉴욕 타임스지는 이 사실을 신문지상에 연재하였다.

이후 미국 연방 정부는 이 보고서의 공개를 제한하기 위하여 엘스버그 및 신문사와 법정 소송까지 치렀지만, 연방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헌법이 언론의 자유를 보장한 것은 정부의 비밀을 파헤쳐 국민에게 알리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정부 기관의 비리나 비행을 폭로한 행위는 공공의 이익에 부합한다.”라고 엘스버그와 신문사의 손을 들어 주었다.

(다) 억압받고 있는 의견이 때로는 올바른 것인지도 모른다. 그 의견을 억압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그 의견의 진실을 부정할 것이 분명하지만 그들의 판단만이 언제나 옳다는 보장은 누구도 할 수 없다. 누구도 전 인류를 대신해서 문제를 결정하고, 다른 모든 사람의 판단력을 빼앗을 만한 권위를 지닐 수 없다.

모든 토론을 침묵하게 하는 것은 ‘인간의 절대 무오류성’을 가정하는 것이다. 하지만 인간은 끊임없이 잘못 판단하고, 잘못 행동하면서 살아간다. 사람들은 자신이 항상 옳은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지만, 불행하게도 실제로 자신이 판단을 내릴 때에는 이를 거의 문제 삼지 않는다. 왜냐하면, 자신이 잘못을 저지를 가능성에 대하여 예방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나, 자기가 확실하다고 느끼는 것이 잘못된 판단에 따른 것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거의 없기 때문이다.

가끔은 자신의 의견이 반박당하는 소리를 듣기도 하고, 또 자신의 의견이 잘못되었을 때 그것을 정정하는 데 어느 정도 익숙한 사람은, 그들의 의견 가운데에서 주위의 모든 사람이나 그들이 항상 존경하는 사람과의 공통된 부분에만 조건 없는 신뢰를 준다. 왜냐하면, 사람은 자신의 판단에 대하여 확고한 자신을 갖지 못하면 못할수록 ‘세상’ 일반의 절대 무오류성을 신뢰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각 개인에게 ‘세상’이란 그가 접촉하는 일부의 세계, 즉 그가 속해 있는 당파, 종파, 사회 계급을 뜻한다.

1. 제시문 (가)의 내용을 요약하시오. (400~500자, 제시된 분량 미 준수 시 감점 처리됨)
2. 제시문 (나)와 (다)를 활용하여 제시문 (가)의 “훌륭하고 정확한 보도는 본래 가장 주관적인 것이다.”를 비판하시오. (800~900자, 제시된 분량 미 준수 시 감점 처리됨)

2020학년도 세종대학교 모의논술 인문계열 채점기준표

<인문계열 A형>

문항 구분	평가 항목	배점		
		항목별	문항 소계	총점
1번 소문항	이해력	130	250	700
	표현력	80		
	정서법	40		
	분량	-10 ~ -80		
2번 대문항	이해력	60	450	
	분석 및 비판적 사고력 1	125		
	분석 및 비판적 사고력 2	125		
	표현력	60		
	구성	40		
	정서법	40		
	분량	-10 ~ -70		

2020학년도 세종대학교 수시모집 논술고사 인문계열(A형) 모범답안

1. 제시문 (가)의 내용을 요약하시오. (400~500자, 제시된 분량 미 준수 시 감점 처리됨)

제시문 (가)는 정확한 보도가 무엇인가를 설명하는 글이다. 정확한 보도란 올바른 보도이고 진실을 보도하는 것이다. 진실이란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의미한다. 진실을 보도하기 위해서는 어떤 사건이나 문제를 부분만 볼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보아야 한다. 이런 관점에서 정확한 보도는 객관적이라기보다 오히려 주관적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가)는 이러한 주장을 윤봉길 의사의 의거로 설명한다. 신문이 객관적 사실만 전달한다면 윤봉길은 한 명의 테러리스트일 뿐이다. 하지만 그 역사적 근거와 조건을 파악하고 전체적으로 보면, 윤봉길의 행동은 식민지 시대에 일제의 착취와 탄압으로 고통받던 우리 민족을 위하여 일으킨 장거이다. 이와 같이 정확한 보도란 객관적 사실을 주관적 관점을 통해 재해석할 때 가능하다. 이를 위해서는 풍부한 지식과 철학적 소양을 갖추고 역사적으로 새로운 가치의 편에 서고자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461자)

2. 제시문 (나)와 (다)를 활용하여 제시문 (가)의 “훌륭하고 정확한 보도는 본래 가장 주관적인 것이다.”를 비판하시오. (800~900자, 제시된 분량 미 준수 시 감점 처리됨)

“훌륭하고 정확한 보도는 본래 가장 주관적인 것이다.”라는 말은 정확한 보도를 위해서는 풍부한 지식이나 철학적 소양을 바탕으로 고도의 주관적 판단을 반영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그러나 이러한 주관적 판단이 정확한 보도의 필수 요건은 아니다.

제시문 (나)에 의하면 주관성이 배제된 객관적 사실만으로도 충분히 훌륭한 보도가 될 수 있다. 엘스버그는 톱킹 만 사건이 베트남전 참전의 명분을 얻기 위해 미군과 군수업체가 일으킨 조작이었음을 밝힌 펜타곤 페이퍼를 공개했고, 뉴욕 타임스지는 이를 보도했다. 이 기사는 객관적으로 사건의 진실을 알린 것이고, 궁극적으로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는 정확한 보도가 될 수 있었다.

설사 주관적 보도라 하더라도 그것이 모두 훌륭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제시문 (다)에서 말한 바와 같이, 인간은 끊임없이 잘못 판단하고, 잘못 행동하면서 살아간다. 자신의 잘못된 점을 수긍하고 바로잡으려는 사람들조차 이를 제대로 교정하기란 쉽지 않다. 기자 역시 예외가 아니다. 뿐만 아니라, 기자가 자신의 주관을 정립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속한 당파나 사회 계급의 영향을 받아 편향성을 지닐 수도 있다. 심지어 기자의 주관적 보도가 자신들의 이익을 대변하거나 불리한 면을 은폐하여 공공의 이익에 반하는 경우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

사건의 내용에 따라서 객관적 사실만으로도 올바른 보도가 될 수 있고, 주관적 보도라 하더라도 반드시 훌륭한 것은 아니다. 사실을 전체적으로 조망하고 새로운 가치를 전달하는 주관적 보도가 필요한 경우도 있지만 기자의 주관성은 훌륭한 보도를 위한 필수 요소는 아니다. 따라서 훌륭하고 정확한 보도는 본래 가장 주관적인 것이라는 올숍 형제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850자)